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 소식

College of Social Sciences Newsletter

vol.11 | 변화하자. 그리고 성장하자

01 학사 일정 02 학장 인사말·예원정 산책 03 사회대 소식 05 학과 소식 08 신간소개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행인 이재식 편집인 이원익
전화 051. 510. 1554 팩스 051. 581. 1456 홈페이지 socio.pusan.ac.kr 디자인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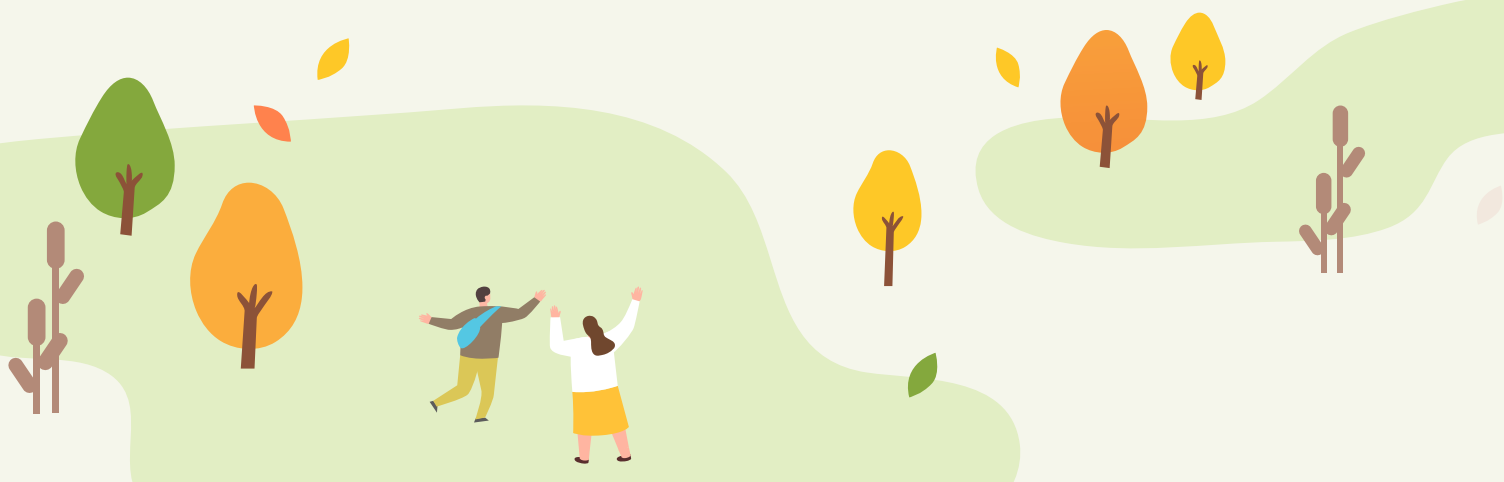
전임학장-학과장 간담회

2023. 8. 2.(수) 다미초밥에서 퇴임하신 전임학장님들을 모시고 사회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옥양련(6대), 김기태(7대), 박재환(8대), 안신호(9대), 신현정(12대), 신복기(13대), 장익진(14대), 박병현(15대), 송정숙(16대), 이행봉(17대) 학장이 참석하여 현 학장단 및 학과장과 사회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사일정

9. 1.	금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9. 1. ~ 7.	금 ~ 목	2023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정정
9. 14.	목	2023학년도 2학기 2차(최종) 폐강강좌 공고
9. 15. ~ 18.	금 ~ 월	2023학년도 2학기 2차(최종) 수강정정
9. 18. ~ 22.	월 ~ 금	학위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9. 19.	화	2023학년도 2학기 확정출석부 출력
10. 4. ~ 11.	수 ~ 수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W)
10. 11.	수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 12.	목	2023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 제출
10. 23. ~ 28.	월 ~ 토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10. 30.	월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 15.	수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3선
11. 27. ~ 12. 8.	월 ~ 금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12. 8. ~ 13.	금 ~ 수	2023학년도 2학기 휴업일에 대한 지정보강일
12. 14. ~ 20.	목 ~ 수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 14. ~ 29.	목 ~ 금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
12. 21.	목	동기휴가 시작
2024. 1. 5.	금	2023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1. 8. ~ 19.	월 ~ 금	2024학년도 1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1. 26. ~ 2. 2.	금 ~ 금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기간
1. 31. ~ 2. 1.	수 ~ 목	2024학년도 1학기 희망과목담기
2. 6. ~ 8.	화 ~ 목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1차 수강신청
2. 14. ~ 16.	수 ~ 금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2. 19. ~ 21.	월 ~ 수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2차 수강신청
2. 20. ~ 23.	화 ~ 금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2. 23.	금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 28.	수	2024학년도 1학기 1차 폐강강좌 공고



학장 인사말

To improve is to change. To be perfect is to change often.
-Winston Churchill-

여름은 원래 덥고 또 더워야 합니다. 덥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더위는 유난합니다. 무더위에 짜증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조금만 참으면 몸을 맡기고 싶은 좋은 날씨를 맞이할 수 있겠지요? 이번 소식지에도 학장의 인사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 다. 학장이 소식지를 통해 보고드릴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내외 사안에 대해 학장이 개인적 의견으로 알가불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전제하면 쓸 말이 없어지는 황당한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든 인사말이 작성되고, 또 어떤 분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리라는 기대가 반복됩니다.

사회과학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인 사회관 개축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설계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대학 구성원, 업체 및 대학본부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의 세부사항에 대한 우리 대학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 내에서는 개축 건물의 공간 배치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이 현재 사용 중인 사회관 공간과 교내 다른 건물에서의 사용 공간을 모두 합한 것에 비해 개축 사회관의 절대 공간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축 사회관에 대한 최적의 공간 배정을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대학교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양상이 예상롭지 않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은 이미 오래된 문제이고, 이 문제와 학령인구의 감소가 결부되어 지역 우수 인재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회대학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여러 측면에서 학교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생들은 전공 교육과정이 학생 요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지, 진로설계나 취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의 측면에 대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보다 특히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공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선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전공 영역의 선택권 확대, 그리고 융복합 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교육내용에서의 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과감하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거점국립대에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으로서 연구와 교육 수준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고 우수한 학생과 역량있는 연구인력을 유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사회문제 진단과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가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는 8월 31일자로 2년간의 학장 직무 수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면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학생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들의 응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어 주셨고, 그 덕분에 학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간 저와 함께 일해 주신 이원의 부학장님과 정해진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회과학대학
이재식 학장

예원정 산책

신임교수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한승희입니다. 부산대에서 한 학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부산대 정문을 지나갈 때면 설렘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여 실수는 하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학과 교수님, 사회과학대학 교수님, 조교 및 교직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과 인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며, 덕분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축구대회, 사회과학대 출범식, 대동제를 말할 때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별 도서관을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새벽 또는 늦은 밤까지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시간에, 학생들 각자 진로, 학교생활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던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제 교육, 연구 및 공공기관, 국책연구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늘 배우는 자세로 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자,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첫 학기,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학과
한승희 조교수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김지훈입니다. 한 학기동안 사회과학대 이곳저곳에서 인사와 대화 나눴지만 부족했던 개인적인 소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택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읽어보면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말처럼 코끝이 시리던 겨울을 지나 2023년 3월의 봄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에서 맞이했던 때가 따뜻했던 건 여러 교수님들의 환대(歡待)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나 교육자로서 앞으로 맡게 될 여러 책임과 책무에 대해 많은 경험 나눠주셔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며 한 학기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건 시간의 마법을 기다리면서도 더욱 성장해야한다는 마음이 들게끔 합니다. 저는 정치사상 연구자로서 이상(理想)과 현실 사이 문제에 고민을 더하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한 학기 수업내용을 소개할 때와 기말고사 문제지를 나눠줄 때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나 되물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식인을 통해 지성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비춰볼 때 스스로 둘 다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되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많은 면에서 서툰고 부족하지만 낯설었던 교정(校庭)이 친숙해진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배우고 익히며 새롭게 발을 디딘 길이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학과
김지훈 조교수

사회대 소식

런치세미나 개최

| 일시 2023. 5. 24.(수) 11:50
| 장소 사회관 110호 대학원 세미나실
| 발표자
Jonathan Hollister (문헌정보학과)_Digital Literacy, Mediating Factors, & Popular Media



신임교수발표회

| 일시 2023. 6. 15.(목) 16:30
| 장소 사회관 208호 강의실
| 발표자
• 한승희(행정학과)_ 재정, 조직 그리고 성과분석
• 김지훈(정치외교학과)_리바이어던을 기다리는 프로메테우스: ‘이성적 원칙’에 따라 설립되는 (정치적) 주권자의 가능성과 한계



신임학장 선출(선호도 조사)

사회과학대학 신임학장 선출을 위해 아래기간 동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2대 신임학장으로 문헌정보학과 노지현 교수가 선출되었다. 2023. 9. 1.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사회과학대학
노지현 교수

| 선호도 조사 기표 실시(학장실)
2023. 6. 15.(목)~6. 20.(화) 12시
| 결과 확인 및 보고
2023. 6. 20.(화) 12시

사회대 전체 교수회의

사회대 전체 교수회의가 2023. 4. 20.(목) 해운대 청사포에서 개최되었다. 사회관 개축 사업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사회대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소개 및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조교 워크숍

사회대 조교 연수회가 2023. 7. 6.(목)~7.(금)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연수회에서 학과별로 업무개선 사례 및 학생지도 방안을 공유하였고, 조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실 워크숍

사회관 개축과 관련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사회대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하고자 학장 이하 직원들이 6. 22.(목)~23.(금) 양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구성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박사학위수여자

· 박소영 [사회복지학과/지도교수: 최송식]
사회적 배제 변화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성장궤적에 미치는 영향

사회대 보직자 명단

이재식	학 장	사회과학대	2021.9.1.~2023.8.31.
노지현	학 장	사회과학대	2023.9.1.~
이원익	부학장	사회과학대	2021.9.1.~2023.8.31.
김비아	부학장	사회과학대	2023.9.1.~
박희정	학과장	행정학과	2023.3.1.~
서재권	학과장	정치외교학과	2023.3.1.~
남재현	학과장	사회복지학과	2022.7.1.~
김영	학과장	사회학과	2023.3.1.~
주성준	학과장	심리학과	2022.8.1.~
노지현	학과장	문헌정보학과	2022.3.1.~2023.8.31.
임여주	학과장	문헌정보학과	2023.9.1.~
김효정	학과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0.9.1.~2023.8.31
이슬기	학과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3.9.1.~
이재식	원 장	행정대학원	2021.9.1.~2023.8.31.
노지현	원 장	행정대학원	2023.9.1.~
정혜진	부원장	행정대학원	2021.9.1.~2023.8.31.
이원익	부원장	행정대학원	2023.9.1.~
이수상	원 장	사회과학연구원	2021.3.1.~

사회대 평의회

김비아	평의원	사회과학대	2023.3.1.~2025.2.28.
김진현	평의원	사회과학대	2023.3.1.~2025.2.28.

본부 보직교수 명단

장덕현	기획처장	2022.3.1.~
황성욱	부산대언론사주간	2년(2021.9.1.~2023.8.31.)
김효정	부산대언론사주간	2년(2023.9.1.~)
이용재	도서관장, 기록관장,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	2년(2022.9.1.~2024.8.31.)
이동훈	홍보실장	2022.7.25.~

장기파견 및 연구년

이철순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3.1.~2024.2.29.
황성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3.3.1.~2024.2.29.
이성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9.1.~2024.8.31.
정영숙	심리학과	교수	2023.9.1.~2024.8.31.
Jonathan Hollister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2023.9.1.~2024.8.31.

행정학과



◀ 2023학년도 행정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정학과는 3. 25.(금) 사회관 301호 및 송정에서 2023 학년 새내기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과장님 인사말씀 및 학생회 소개, 행정학과 소개 및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입생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학과 신입생 대상 전공특화형 비교과 프로그램(견학) 실시 ▶

행정학과에서는 2023학번 신입생 대상으로 4. 27.(목) 고리원전견학을 진행하였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차 공공기관 등의 사회에 진출하여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장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견학을 진행하였다.

정치외교학과

2023학년도 정치외교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정치외교학과는 2. 28.(화) 성학관 102호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수님 소개 및 학생회 소개, 그리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과 해외 교류를 다녀온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정치외교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학생들에게 학사 및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 정치외교학과 견학 프로그램

정치외교학과에서는 5. 19.(금)~20.(토) 양일간 견학을 진행하였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과 학부생 40여명이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실을 관람하고, 시의원 및 의장과 접견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하여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국립대학혁신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전공 역량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2023학년도 서원나눔재단 예비사회복지사 장학수여식

서원나눔재단 예비사회복지사 장학전달식이 2023. 5. 31.(수),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서원나눔재단은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올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서하(18학번), 전민주(18학번), 박관호(21학번), 이고은(22학번)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장학생들의 훌륭한 예비사회복지사로의 성장을 기대한다.



2023학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6. 26.(월)~8. 31.(목)까지 2023학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실습에는 총 48개 기관, 6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올바른 실습 진행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6.9(금)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우수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학과



◀ 2023학년도 사회학과 학부 신입생 환영회

2023. 3. 24.(금)~26.(일) 경주에서 2023학년도 사회학과 학부 신입생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신입생 환영회인 만큼 사회학과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으며, 사회학과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교수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의 조별 구성 및 아이스브레이킹, 교수-제자와의 대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학과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23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2023. 4. 29.(토) 비판사회학회와 부산대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2023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지역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지역 정치와 환경운동', '노동과 실업', '도시/공간/장소', '지역도시와 문화적 실천', '종교/문화/상징', '정치/청년 자립/ 계층'과 관련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지역에서 사회학하기'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참석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심리학과

심리학과 걷기대회 ▶

심리학과는 2023. 5. 20.(금)에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스포원파크에서 출발하여 회동저수지까지 걸으며 몸과 마음을 챙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학부생 약 30명이 참여하였다. 걷기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강의실에서는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선후배 간에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에는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을 포함하여 행사를 진행하여 학과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심리학과 콜로키움 개최

대학 구성원들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심리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23. 5. 26.(금)에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혜경 교수를 모시고 '가치의 문화심리학'이라는 연구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이 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접하고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사제동행 걷기대회 ▶

문헌정보학과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 15.(월) 사제동행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학과 교수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80명이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참가하였다. 송정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이어진 코스를 걸으며 각 팀별 미션에 맞는 사진을 교수님과 함께 촬영하였다. 개교기념일이자 스승의 날이기도 했던 이날, 모든 학과 구성원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문헌정보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매 학기 진학 ·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구분	프로그램명
사서교사 특강	그레도 2023 부산 1등! 사서교사 임용 특강 - 태종대중학교 사서교사 이춘구
	선배가 들려주는 사서교사 이야기 - 울산중앙중학교 사서교사 김한
학내 프로그램 참가경험 교류	인문 100년, 이런 장학금 또 없습니다. - 20학번 정해윤
	공모전과 교환학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 21학번 이기현
	일본에서의 교환일기, 교환학생 준비의 모든 것 - 20학번 안여은
학내 단위 국제교류	2023년 여름방학 부산대학교-츠크바대학교 교류회 - 일본 학생 방문 : Takao Masumi, Shinabe Ayane, Kobayashi Kanoa (3명)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츠크바대학교와의 학생교류 사업도 재개하였다. 츠크바대학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우리 학과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열흘간 상호 대학에 방문하여 수업 이수 및 현장 견학 등의 시간을 갖는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취업 특강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4월 6일)와 부산일보(6월 5일)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를 초청하여 광고산업의 구조와 광고대행사, 지역신문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해 광고산업 구조와 지역신문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 분야로의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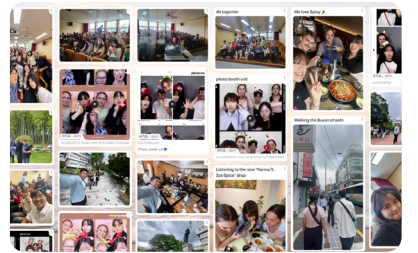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동백섬 걷기 행사

2023. 5. 13.(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진과 신입생, 재학생이 함께 동백섬을 일주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동백섬 산책길을 따라 거닐며 교수님들과 학내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선·후배 간에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리마루 앞마당에 모여 신입생과 재학생이 팀을 이뤄 전공문제 풀이 시간을 통해 학과 관련 퀴즈를 맞추면서,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대학교 & BELMONT대학교 국제교류 행사 ▶

미국 테네시 주의 내슈빌, 컨트리 음악의 중심지에 위치한 벨먼 대학(Belmont University)의 Mike Curb College of Entertainment & Music Business 재학생들 21명이 5. 26.(금)에 부산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꿈과 열정, 그리고 청춘만큼은 비슷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특별한 글로벌 만남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과학연구원



제4회 부산대학교 · 기타큐슈시립대학 국제심포지움이 2023. 8. 16.(수) 부산대학교 사회관 102호에서 개최되었다.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이수상)과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소장: 우치다 아키라)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가 '느린재난과 고리원전마을'을 주제로, 사회학과 대학원생 우동준씨가 '인구감소지역 빈집문제에 대응하는 부산시 영도구 봉산마을 커뮤니티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서는 사카모토 타케하라 교수가 '커뮤니티 지원의 리빙랩과 시빅테크'를 주제로, 대학원생 코가 슈나씨가 '카타큐슈시 탄가시장 화재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8. 17.(목)에는 영도 비석 마을과 광강이 마을을 함께 답사하였다.



1. 『일상의 발명: 실행의 기예』 미셸 드 세르토 지음, 신지은 역 | 문학동네 | 2023

일견 수동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기성의 구조 속에 모호함과 애매함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겨난 틈새 속에 대중은 자신의 창조적 흔적을 무수히 남긴다. 세르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단순한 획일화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읽어내는 대중의 일상적 행위에서 창조적인 미시저항을 발견해냈다.



2. 『일본자본주의 위기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회인가?』 김은혜 외 8명 지음 | 박문사 | 2023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의 일본자본주의 위기 연구는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사회 모순과 성숙의 과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생활세계의 복합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 책은 제1부 생산, 노동, 복지, 교육의 내일을 묻다, 제2부 생활세계의 확장, 부흥과 재생의 기획, 제3부 문화산업과 자본주의의 혁신 가능성으로 구성되었다. <제2부 제4장 도쿄권 교외화의 형성과 쇠퇴를 넘어서(김은혜)>는 고도성장기에 도쿄 근교로 교통망이 확장되고 주택단지가 형성되었지만,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에 그 쇠퇴가 시작된 현상을 보여준다.

